

# 윤상원의 벗, 임진택 창작판소리 '오월광주'

내일 문화가 있는 수요일



양림동 일원 '1930 양림살롱' 문화재단 '필리아 앙상블' 음악회  
한전KDN '작장배달 한식콘서트'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시낭송회  
집콘 '한옥, 레계 음악을 만나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5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산문화재단은 '광산오월문화제' 마지막 공연으로 임진택 창작판소리 '오월광주'(오후 7시30분)를 무대에 올린다.

민중문화운동 1세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기도 한 소리꾼 임진택은 창작 판소리에 힘을 쏟아왔다. 유명한 '뽕바다'를 비롯해 '소리내력', '백범 김구' 등이 대표적이다.

'오월 광주'는 임씨가 5·18민중항쟁 10주년이던 1990년 도청을 사수하다 세상을 떠난 '오랜 벗' 윤상원을 그리며 창작한 작품이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기점으로 5월18일 공수부대 투입부터 5월 27일 시민군의 도청 사수까지 열흘간의 기록을 총 네 단락으로 구성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번 공연에서는 '계엄군을 몰아낸 시민군'부터 작품의 마지막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부분까지 공연한다. 고수는 판소리 고별 이수자 조영제씨가 맡는다. 티켓 가격 1000만원. 문의 062-960-8989.

쥬스컬퍼니가 진행하는 '1930 양림살롱'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열린다.

사직공원 전망타워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조흠과 b+디제이 퍼포먼스 댄스 파티 '양림에 탄스홀을 허하라' 행사가 진행되며 '양림극장'(호랑이사 미술관)에서는 영화 '연지구' 상영과 함께 영화평론가 전찬일씨가 '영화 '연지구'에서 '아가씨' 까를 주제로 1930년대 영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193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쌈뽕극-모던컬 다이어리', 야시장 '열정의 백미' 등이 열리며 1930년대 의상을 빌려 입을 수 있는 모던의상 대여 행사도 진행한다.

양림동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도 열



광산문화재단에서 공연되는 임진택 창작 판소리 '오월 광주'



오정혜



김반장

린다. 월슨 선교사 사택에서는 놀이패 신명의 오월극 '연제나 봄날에'(오후 5시~6시30분)가 공연되며 카페 파우제에서는 김선희의 '모던팝페라 콘서트'가 진행된다. 또 재즈 그룹 'Ato Trio' 공연(한희원 미술관·오후 6시20분), 인디언 수니의 '모던에찬 콘서트'(동계비)(오후 7시)가 진행되며 호랑이사나무언덕길에는 스윙밴드 'Bill Street'가 공연한다.

양림동 다형다방에서 5000원으로 쌀통 페이를 환전하면 양림동 원하는 카페에서 음료 세잔과 텀블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70-4239-5040.

광주문화재단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런치콘서트(낮 12시 20분)로 세미클래식 '필리아 앙상블

(대표 서호근) 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올드보이',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등 대중에게 친숙한 다양한 OST를 선보인다.

바이올린 노성경, 클라리넷 박자람, 플루트 박자수, 첼로 조아람, 건반 정인지 씨가 함께한다. 문의 062-670-7945

나주 한전KDN 빛가람홀에서는 한식도 먹고 콘서트도 즐길 수 있는 '작장배달 한식콘서트' 공연이 낮 12시부터 열린다.

한식 시연과 관객 시식을 마련해 체험형 콘서트로 진행한다. 영화 '서편제' 주인공을 맡았던 오정혜씨가 출연해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함께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국악과 무용 공연을 펼친다. 그밖에 궁중 요리전문가 황지희 씨가 참여해 '왕이 사랑한 음식'을 주제로 조선 영조가 좋아한 음식 '탕평채'를 시연한다.

'세계조각장식박물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서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시낭송콘서트 '에모의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양명희 시낭송가가 박두진의 '청산도', 박성애씨가 '우화의 강'을 낭송한다. 이어 '오 하나 앙상블'이 우쿠렐레 연주 '산골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양순영씨가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윤동주), 서미자씨가 '해남에서 온 편지'를 낭송한다. 문의 062-222-0072.

함평 잠림미술관에서는 '에듀케이터' 해설이 있는 미술관을 진행한다. 31일까지 열리는 '잠림-도화현미술관 교류전'에 대한 해설과 함께 간단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체험 행사는 사전 접수 해야하고 참가비는 5000원이다. 문의 070-8872-6718.

5월 '집콘' 주인공은 김반장과 윈디시티로 나주시 금학원에서 이색 뮤지컬콘서트 '한옥, 레계 음악을 만나다'를 진행한다.

네이버 포스트 '집콘'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후 7시부터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모바일과 웹에서 만날 수 있다.

그밖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오후 5시~밤 9시)에서는 3000원 할인된 5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족보·문헌·성씨의 시조 등 호남 문중 30곳 체계적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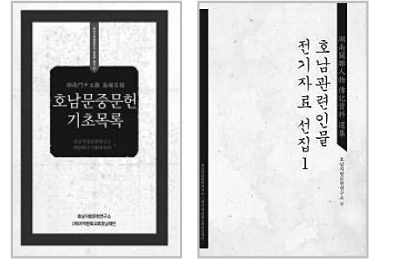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도 출간

호남지역 문중(門中) 30곳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책에는 각 문중의 족보류, 지장류, 문헌록 등 관련된 문헌 해제와 성씨의 시조, 현황 등 문중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수록돼 있어 문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문중의 역사와 지역문화, 지역인물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호남지방문헌연구소(책임교수 김대현)와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장 백수인)은 최근 호남기록문화유산 네 번째 목록학 총서인 '호남문중문헌 기초목록'을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연구 사업의 하나로 발간됐다.

호남에는 많은 문중들이 지금까지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문중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례로 해남군 연동리는 해남윤



씨 어초은공파의 세계지(世居地)다. 이곳 '녹우당 문고'에는 다양한 족보와 문집류인 '당약유사', '연방집'을 비롯해 공재 윤두서의 화첩인 '윤씨가보', '가전보화' 등이 소장돼 있다.

한편 호남지방문헌연구소와 지역문화교류재단은 호남 인물 정보 기초 자료인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1'도 출간했다. 책에는 15세기 이전에 출생한 인물 20명의 전기 자료가 반영돼 있으며, 향후 100명의 인물을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이다.

김대현 책임교수는 "한문 문헌에 소재한 전기자료는 한 인물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자료"라고 전체하며 "호남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자료의 집성이 필요하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민문학 강좌 '리얼리티 인문 지향'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초여름의 길목, 인문학을 통해 인문적 성찰과 미학적 승화하는 가치를 내걸고 시민들을 만나왔던 광주시민인문학이 서든 두 번째 정기 강좌를 연다. 이달 18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리얼리티(실천) 인문학 지향이라는 모든 아래 인문학 강좌와 인문 활동으로 나눠 진행된다.

인문학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한국문학, 사회학, 일본문학 특강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최창근 박사가 '동화 새롭게 읽기-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화요일은 연극 특강 시간으로 연극배우 이현기 씨(극단 연우랑 대표)가 '연극학 이론에서 낭독 연극까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수요일은 '피에르 브루디의 사유의

지평-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사회학스터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박사과 인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고독의 별명-웃는 늑대'의 언어적 시선을 통해'와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W. A. 모차르트 시리즈II'를 매개로 강의와 감상 이 이어진다.

토요일(오후 5시)과 일요일(오전 9시)에는 SEMI강좌 '영화 reading'과 '인문여행'이 열린다. 무비토크 시간에는 '21세기 소설원작 영화 초대작' 감상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인문여행'은 '남도마실 2탄-강진에서 정약용에게 길을 묻다' 등을 매개로 힐링 시간을 갖는다.

수강료 대학생 무료,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항상을 건행하고 그리고 혁신도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